

'거리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내달 4일 개막

'시민 예술애(愛) 물들고(GO)-함께하는 환경친화 축제'
5·18민주광장·푸른길공원·양산·수완 호수공원서

광주지역 대표 거리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온·오프라인 동시 관람가능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객을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다음달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함께하는 프린지페스티벌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시민, 예술애(愛) 물들고(GO)-함께

하는 환경 친화 축제'를 주제로 '우리동네 프린지페스티벌·민주광장 프린지' 등 2개로 나뉘어 펼쳐진다. 광주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열리는 '우리동네 프린지페스티벌'은 다음달 4일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남구 푸른길공원(11일), 양산호수공원(18일), 수완호수공원(25일)에서 열린다.

또 7월 2일 침단쌍안공원, 광주에너지파크전시관(9일), 광주비엔날레

광장(16일), 문화근린공원(23일), 물빛근린공원(8월 27일), 신암근린공원(9월 3일)에서 거리공연이 예정돼 있다.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민주광장프린지'는 9월 24일, 10월 1일~3일, 22일 총 5차례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시작을 알리는 다음달 4일 행사는 지역 예술 단체와 국내 초청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종합 서커스'를 비롯해 '거리댄스', 서커스 음악극 '체어, 테이블, 체어' 등이 진행된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아트마켓이 펼쳐지며 기후(환경) 위기를 주제로 '쓰레기 재활용 아트작품' '에너지 전환 예술놀이터',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 종이부투 재활용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호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예술감독은 "2022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시민, 예술, 환경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서울 신립선 개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운영 '디딤돌'

서울 신립선이 개통하면서 신립선 관제운행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기술역량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동일한 시스템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운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따르면 전남 개통된 서울 신립선은 여의도 셋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11개역, 총 7.7km를 운행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해 5월부터 신립선 관제 운영과 관리운영 계획 작성,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지원 등을 맡아 개통을 준비해왔으며, 앞으로 3년 동안 관제운행을 담당하며 신립선 운영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신립선 운영 사업으로 폭넓은 경험과 기술력을 쌓아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완벽한 개통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즉 2호선 개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상황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신립선 경전철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동일한 시스템인 고무차륜과 무인운전 방식이어서 2호선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직원 18명이 신립선 현장에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공사는 이들의 숙련된 경험을 2호선 개통과 신입사원 교육을 위한 핵심 노하우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전남도는 지난 26일까지 5일간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베트남 시장개척단 739만 달러 계약 성과

농수산물 · 공산품 등 15개 기업 참가

전남도는 지난 26일까지 5일간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완화로 무력리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전남 수출기업의 대면 마케팅 수요를 충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농수산물기업 11개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기업 4개사를 코로나 이후 전국 최초로 베트남에 파견해 수출상담을 했다.

그 결과 15개 참가기업 모두 33건, 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했다.

지난 24일 호치민 수출상담회에서는 7건, 104만 달러, 25일 하노이 수출상담회에서는 26건, 635만 달러를 계약했다.

하노이 수출상담에서는 완도물산이 조미김 160만 달러, 끝단힐이 농수산물 115만 달러, 현농프레쉬가 신선농산물 100만 달러, 호인이 네일아트제품 60만 달러, 완도사랑이 전복가공식품 51만 달러, 완도맘이 미역 등 50만 달러, 맛나푸드가 조미김 등 23만 달러, 에스에프시가 계면활성제 20만 달러 계약을 했다.

/박종배 기자

광주 사회서비스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시, 중복·불일치한 조항 정비...위임사항 등 신설

광주시가 지난 2020년 4월 제정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지난 3월 25일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근거를 사회서비스원법 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급급돌봄서비스와 종합재가서비스를 추가하고 ▲정관 변경의 경우 법적에서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규정된 만큼 시의회 사전보고 등을 삭제했다.

임원 구성도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한 조항을 법에서 정한대로 이사장은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변경했고, 임원 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에서 정한대로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6월 2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와 법무담당관실의 법적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시의회 입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

지난해 전남 찾은 관광객 4240만명

전년 대비 9.3%↑...여수 엑스포공원 최다 방문

전남도는 2021년 한 해 동안 4240만5900명이 전남의 청정·안심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남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합계로, 2020년 3877만5900명보다 363만 명(9.3%) 증가한 수치다.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며, 관광 지식정보시스템(know.tour.go.kr)을 통해 공표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전남의 관광지는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으로 전년 대비 55만

여 명이 증가한 360만명이 찾았다. 이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여수 오동도와 돌산공원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 담양 메타프로브스와 목포 해상케이블카, 아쿠아플라넷 여수, 담양 죽녹원 등에 각각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들었다.

지난해 시군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증가 수치는 순천 118만, 여수 105만, 고흥 50만, 구례 32만, 목포 25만, 나주 23만 등이다.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의 방문객 수가 늘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28만9000명의 관광객이 찾은 함평이다.

/조일상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887명...진정세

광주·전남지역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대 미만을 기록, 유행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하루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420명, 전남 467명 등 총 887명이다.

지난 27일 1004명보다 117명 감소했다. 광주는 15일째, 전남은 9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다.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지인·직장 동료 간 접촉을 통한 지역 감염 사례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는 6명 뿐이다.

전남 사망자는 없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4명이다.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409명은 재택 치료 대상자다.

전남은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김도기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